

# 대불련 새내기 환영준비 바빠요

한국대학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신하 지부들이 3~5월까지 유명 강사의 공개강좌 등 신입생포교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대불련에는 24개 지부, 173개 지회 등이 개설,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불련 최소 단위인 '대학생 불교동아리' 즉, '지회에서의 새내기포교'는 중앙집행부와 생활 지부에서 각각 지원하고 있다.

대불련 중앙집행부는 각 지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99년도 신입생 포교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 포교'를 최근 발간하고, 지회별 10부씩 배포했다. 40쪽 분량의 포교책자는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나에 대한

## 서울·경남등 24개 지부 다양한 행사 민요공연·불교강좌·장기자랑 '눈길'

고찰) △주변 조건, 상황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불자로서의 삶 △지부 안내 등으로 구성됐다. 대불련 중앙집행부는 홍보포스터도 제작했다. 대불련은 또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체'로서의 대불련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문양을 개발, 세 가지 홍보포스터도 제작했다. 홍보포스터는 천리안에 개실된 '대불련포럼(JGKBUF)'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지부에서 다운로드(가져오기)해 이용할 수 있다.

경남지부(지부장 이항로)는 3월 27~28일 '새내기 첫걸음'을 마련한다. '대불이의 불교알기'라는 주제로 마련되는 '첫걸음'에는 신입생들에게 불교와 대불련을 설명

하고, 경상대학교 등 경남지역 8개 대학교의 회원들이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공동체 놀이들이 마련된다.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성만재)는 4월 4~5일 동화사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발돋움 강좌 '새내기들과의 가을'을 개최한다. △범명스님과 함께 △새로운 곳에서의 시작 △나의 곁에 있는 것은 △나의 자아 포살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새내기...'은 대학생들이 문화적 전통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서울지부(지부장 이승철)는 5월 1일 '새나기와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개최한다. 불교학술회 활동을



◇불교를 배우며 우정을 다져오. 대불련 서울지부 새내기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신입생들의 즐거운 한때.

하는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바람직한 청년불자의 이상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불련 소개 △민요공연 및 따라 배우기 △풍물패 축하공연 △새내기 장기자랑 △범명스님과 함께하는 불교레크리에이션 △대불련 소개 및 서울지부 어우러지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이외에도 광주지부(지부장 양문승)에서 4월중 '불교입문강좌 및

대중교양강좌'를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강릉·경기·공주·제주·목포등 21개 지부의 '새내기 맞이 준비'가 한창이다.

대불련 한승희회장은 "95년도부터 종교동아리에 가입하는 신입생들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라며 "새나기를 맞는 중앙집행부, 지부 그리고 지회의 행사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opia.com)

## 명사들의 건강비결 ⑥



이 병 주

(동국대 명예교수)

"건강비결이 따로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 잘자는 것이다."

이병주 박사(78·동국대 명예교수)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만큼 좋은 '보약'이 없다고 말한다.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강사직을 시작한 새벽 산행이 이 박사의 건강비결이다. 이제는 배를 수 없는 일과가 되어버린 새벽산행으로 지금도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건강관리는 평소의 생활에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행동들을 삼가는 것입니다. 건강관리 노력이 건강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요령은 너무도 평범한 수단인 영양 운동 휴식의 조화입니다. 소식이 약해보이고 운동이 삶의 활력소가 되며, 휴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저장입니다."

저녁 9시 취침, 새벽 3시 30분 기상, 산행, 소식이 이 박사의 하

루 건강관리. 또 매주 일요일에는 북한산 승가사를, 1년에 한번은 설악산 대청봉을 오른다. 물론 사할 때 들러 마음먹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마음의 발을 잘 가꾸면 신체도 건강해진다는 것이 이 박사의 정신건강론이다.

이 박사가 건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54년, 권상로박사로부터 두시언해를 배운 때였다. 공부시간은 새벽 5시, 동대문에 살고 있던 이 박사는 새벽4시30분에 일어나 권상로 선생이 살고 있는 돈암동까지 갈 수 있었다. 낮에는 강의를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 했던 이 박사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 공부하러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힘겨워하는 나를 보고 권상로 선생은 '그렇게 체력이 약해서 무슨 공부를 하겠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학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평생 운동습관을 갖게된 동기입니다." 이 박사는 두시언해를 공부했던 8개월 동안 아침운동을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팔순을 눈앞에 둔 이병주박사는 젊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건강이 넘치는 모습이다. 깨끗한 머리, 맑고 또렷한 음성, 밝은 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이 박사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 권상로 선생님의 덕택이다"고 고마워했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opia.com)

## 봉화산수련원 '한문서당' 최우수

제1회 전국 청소년 프로그램 경진대회  
참선·발우공양 등 27개 강좌 인성교육

봉화산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의 한문서당 수련프로그램이 2월 9~11일 '체질·참여를 통한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강원도 평창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주관한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유스호스텔, 단체등 관련기관에서



○선진규씨

총 100여종의 청소년프로그램이 응모, 경합을 벌였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봉화산청소년수련원의 한문

서당 수련프로그램은 '발우공양' '반야심경 외우기' '참선' '예상' '자세 바르기' 등 27가지의 수련 내용을 담고 있다.

선진규원장은 "한문서당 수련프로그램은 청소년 인성교육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심사위원 5백여명의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으로 봉화산수련원은 상금 2백만원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성과 창의력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 환경보호, 인터넷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종욱 기자

## 청교련 붓다의 메아리 동대부고 사물놀이 갈채

대한불교청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지부장 광명스님)는 2월 21일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제48회 붓다의 메아리'를 개최했다.

수국사 학생회, 영파여고·동대부고 불교반, 성불·해연 학생회등 불자 3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풍물, 탈춤, 풍토, 허슬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동대부고 학생회와 사물놀이부는 청소년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광명스님은 "붓다의 메아리가 청소년들과 동문들의 단결된 한마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는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포교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국사 학생회, 영파여고·동대부고 불교반, 성불·해연 학생회등 불자 3백여 명이 동참한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들이 그동안 준비해온 풍물, 탈춤, 풍토, 허슬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특히 동대부고 학생회와 사물놀이부는 청소년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광명스님은 "붓다의 메아리가 청소년들과 동문들의 단결된 한마음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청소년교화연합회 서울지부는 청소년의 정서순화와 포교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BBS '거룩한 만남' 4백회

7일 능인선원서 기념공연 등 행사

성금 모금 방송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행을 권하는 불교방송의 최장수 프로그램인 '거룩한 만남' (총연출 진영조PD)이 4백회 특집을 맞아 7일 오후 2시 능인선원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나누는 마음이 세상을 밝힌다'란 제목으로 열릴 이번 행사는 동회스님(중요무형문화재 50호)의 바리새 공언을 시작으로 니루까지 실연단의 연주, 4백회까지의 성금수혜자들과의 만남의 시간, 심진스님과 김영임씨의 축하, 작곡가 유승엽씨의 오카리나 연

주 등의 순서로 꾸며진다.

91년 4월5일부터 방송된 이 프로그램은 그동안 24억여원의 성금을 모금해 매주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이들을 비롯, 소년소녀 가장 등 다양한 이웃들에게 전담해 왔다. 진영조PD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희망을 열고 다시 살 수 있는 이들이 많다는 사연에 보람을 느낀다"고 4백회를 맞아 감회를 털어냈다. 이날 행사는 12일 오전9시5분부터 10시 까지 방송된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opia.com)

## "새싹프로 교계후원 절실"

BBS '롬비나 동산' 제작 한지윤PD

어려운 제작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을 지키는 PD가 있다. 매주 일요일 오후 3시5분부터 55분간 방송되는 불교방송 '롬비나 동산'의 한지윤PD가 그 주인공. 지난해 9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맡아온 한PD는 재정난으로 인해 제작비 지원이 전혀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새싹 불자 포교라는 임무를 세워 어린이 포교 프로그램의 명맥을 유지해 가고 있다.

한PD의 가장 큰 고민은 프로그램 협찬과 후원이 없는 데다가 작가와 리포터 없이 혼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의 구성이 힘들다는 것이다. 또 출연료 때문에 유아 전문가와 프로그램 진행에 적합한 출연자 섭외가 어렵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현재 이 PD는 진행자인 자용스님(경향 영화유치원 원장)을 비롯 이석순(수원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정유탁(풍경소리), 조영애(한국 동화연구학회 회장)씨 등 4명의 출연진들에 의해 구연동화, 찬불가요 부르기, 어린이들의 고민 상담 등 꾸



◇롬비나동산 제작팀. 사진 오른쪽에서부터 한지윤PD, 진행자 자용스님, 도우미 박미정씨.

며 지고 있지만 성격이 동일한 타 방송사 프로에 비해 형식이 단순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PD는 스튜디오에 어린이들을 초대해 동요도 부르게 하고 전문 성우들을 출연시켜 구연 동화도 들려주는 등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지만 이 역시 현재 여건으로는 요원한 꿈에 불과하다.

한PD는 "새싹 불자들을 위한 방송 매체 포교는 어린이 인격 형성을 위해서 중요하다"며 교계의 많은 지원을 당부했다.

김주일 기자(jikim@buddhopia.com)

## 단 신

레크리에이션 2급 과정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회장 송득, 이하 포교회)는 제11기 불교레크리에이션 2급 지도자과정을 16일부터 6월말까지 개설한다. 지도자 과정에는 법회운영과 프로그램 작성법을 비롯해 불교교리, 민요부르기, 불교레크리에이션, 무대 꾸미기, 전래놀이, 오리엔티어링 등의 교육이 준비됐다.

포교회는 이번 강좌에서 어린이 지도자들이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집전교회를 봉행할 수 있는 불교 전문 지도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민요부르기'와 '집전교육'을 신설했다. 강좌는 매주 화·목요일 7~9시 마련된다.

연꽃노래잔치 4월 예선

대한불교청년회 직할 서울불교

청년회(이하 서울불청)는 4월 18일 불교문화교육원에서 제11회 연꽃노래잔치 예선을 치른다. 어린이들에게 건전하고 밝은 찬불가 보급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어린이 불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종목은 독창, 중·합창이며, 참가비는 독창 1만원 중·합창 5천원. 연꽃노래잔치 본선은 5월 1일 동국대 중앙당에서 열린다. (02)730-6018

금광사 청년회 28일 창립

광주 금광사 청년회(회장 김장욱)는 28일 오전 10시 금광사 법당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법회에는 금광사 주지 중공스님, 조기동 신도회장, 천태종 전국청년회 이문수 회장등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청년회는 이날 '무등산 연합동반'을 2부 행사로 준비했다. (062)375-3191

## 大道無門 육신통 기묘년 유.佛.선 사상최초 계룡산 연천봉 도인 사명자 및 도통군자 대법회

선천도수 강하시대의 증감시대가 교체되어 15진 주 사명자, 사성제, 사구계를 통섭, 지계수복자라 도개비를 깨우고 사순과 사역을 통섭, 구원을 평정하는 계론, 시론, 생천론, 예단경 大道心力通天안통, 타심통, 천리통, 신축통, 속명통, 루진통의 경지를 얻어 안 이 비 실 신 의 도인, 선인, 진인 출현미묘법으로 유.佛.선 삼교를 포용하여 생애의 죄업과 영생의 비법과 지옥의 영가해탈법을 얻는 정진대회를 乾과坤의 잣대이자坤의 良方의 초점인 이곳은 天地人의 대운의 명천 계룡산 계룡면 감사위 대자암연 연천봉하 천하 대명산 명당이자 대통군자 진인을 배출하는 명산에서 사상최초로 산신제 및 천신, 지신, 인신, 육신통의 수행정진과 도인들의 법연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와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양의 천운과 더불어 전 세계에 국위선양과 명예를 빛낸 이 명산도당에서는 천복과 천문이 교체되는 낮 정오에 태양과 직접 33초의 광도를 넘어 99초안에 천안통을 즉시 시험하여 삼생의 업연이 소멸되는 과정을 지도하며 옛 신도안의 도인들에 발전과 시명을 다하기 위하여 옛 선조들의 전통적인 수련법으로 연성법인(원) 21명 해인도법은 대은하계의 환인 천제님께 본인이 직접 응답하는 날인고로 저승명단에서 제외되며 출

미해진 정신 잡신에 깎달리는 신병과 신축과물한 비법은 귀신도 알지 못하는 비밀장미로 弓弓乙乙 이 재기처 사담칠두라, 석정근 우복등 여차장구의 근본인 육자대명 왕진연과 준제진으로 鬼를 무림 불 환 우물 미륵상생의 본 뜻을 깨달아 수준높은 도를 통하여 도인들의 저변에 자질향상과 도덕성회복으로 환경질서와 후학들에게 眞人의 근본으로 소원성취하 옮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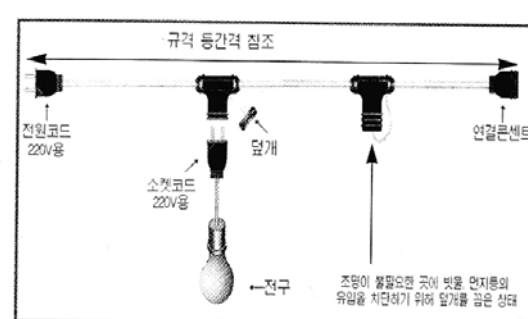
**특별강설. 주역서문. 附夫 박종호선생**  
 ■고 문: 정도아선생, 소산선생, 유성탁선생, 북한산 김용자박사, 민법 선생  
 ■지도 법사: 육해룡원장 임준상회장 설래장스님 해광스님 철원약사사  
 ■준비위원장: 정정은사장  
 ■신도 회장: 정영도 ■약사회장: 한숙자  
 ■육신통회장: 문반야심  
 ■부위원장: 청주약사사 한문규 김성룡

- 입 제: 1999년 3월 8일(월)亥시 ●회향: 1999년 3월 9일(화)亥시
- 회 비: 1박2일, 침식, 교통비, 일체포함, 일금3만원
- 장 소: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감사위 대자암연 연천봉하
- 접수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360-188 태일 약사선원
- 전 화: 02)821-6622, 923-3110, 016-239-3110
- 출 발: 모자원고개, 보리매병원후문고개, 3월8일 오후 6시 3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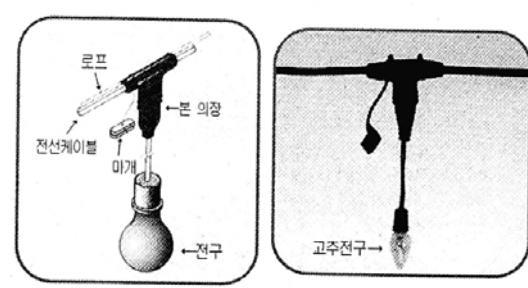
※계룡산 감사 주차장 도착 입실하오니 각자 가실분은 가지고 직접 확인하시고 시간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 봉축행사 가로등·법당 기도등용 전기배선

귀의 삼보하옵고, 전법 도생에 여념 없으신 스님의 고귀하신 뜻에 합장 향배 올립니다.



- ▶규격 등간격
  - 등간격 30cm, 50cm → 전체길이 25m
  - 등간격 1m, 2m, 3m, 5m → 전체길이 50m
  - 규격의: 주문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 ▶등 종류
  - 외부용: 후로킹
  - 내부용: 팔각등 실크 후로킹
- ▶기 타 주 문
  - 본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신성기획 TEL: 02)3141-3789 / 02)332-3786 H.P: 019)380-3786 FAX: 02)322-3785